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트럼프 정책의 여파를 판단한다
- WSJ: 홀리데이 시즌 소매 판매는 계층 간 '양극화'

[미국 금융]

- CNBC: 10년 국채 금리 거의 7개월 만에 최고치
- CNBC: 다우존스 2백 포인트 이상 하락에도 불구하고, 홀리데이 시즌 상승세

[물류]

- WSJ: 미국의 '니어쇼링' 붐으로 미 제조업 일손 부족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2주 연속 상승, 7월 이래 최고치

[오일]

- WSJ: 유가 상승... 중국 경기 부양책 주목
- Bloomberg: 유가 상승, 연말 거래는 2025년 리스크에 주목 중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위협이 공급망에 두려움을 준다
- WSJ: 일본 경제 회복 중... 모멘텀은 불안정
- Bloomberg: 중국 금융 및 부동산 인력 감소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항공사 주가 10년 만에 최고치, 여행 붐 덕분
- Bloomberg: OpenAI, 영리기업으로 전환 계획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WSJ: The Fed Is Trying—Again—to Size Up Trump 연준, 트럼프 정책의 여파를 판단한다

- 연준은 트럼프 정책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인플레이 압력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피하려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 연준은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더 강한 가격 압력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및 이민 정책의 예상 여파를 검토하고 있다.
- 연준의 트럼프 정책에 대한 대응은 인플레이와 실업률 등 경제 여건들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WSJ: Holiday Sales Reveal a Split in Consumer Spending 홀리데이 시즌 소매 판매는 계층 간 '양극화'

- 이번 홀리데이 시즌의 소매 매출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행태로 나누어진다. 올해의 경우 인플레이에 지친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통해 명절 선물과 식품, 장식에 큰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 그러나 매출은 연소득이 10만불 이상의 계층 위주로만 증가했다.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여전히 식료품, 자녀 양육비, 기타 월간 지출의 고물가로 힘들었다.
- 즉, 연소득 5만불 미만 계층과 10만불 이상 계층 간에 소매 지출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방 가전 제품 Newell Brands에 따르면 고급 품목의 지출은 증가한 반면, 가격이 낮은 제품의 수요는 줄었다.
- 한편, 지난 11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 시점까지의 전반적인 소비자 지출은 작년 동월에 비해 3.8% 상승했다. 특히 외식과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많이 증가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CNBC: 10-year Treasury yield back above 4.6% to end the holiday week 10년 국채 금리 거의 7개월 만에 최고치

-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늘 금요일 오전에 또 상승하면서 지난 7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에서 움직이고 있다.
- 10년물 국채 금리는 1 베이스 포인트 상승해 현재 4.593%에서 거래되고 있다. 어제는 4.641%를 기록해 지난 5월 이래 가장 크게 상승했었다.
- 반면에 2년물 금리는 약간 떨어진 4.318%에 거래되고 있다.

CNBC 기사

CNBC: Dow falls more than 100 points, but on track to post winning holiday week 다우존스 2백 포인트 이상 하락에도 불구하고, 홀리데이 시즌 상승세

- 미 주식은 금요일 기술주 주도로 하락 중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긍정적인 홀리데이 주간을 보여주고 있다.
- 다우존스는 6일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처음으로 감소해 240포인트대를 기록했다. S&P 500은 0.8% 줄었다. 나스닥은 테슬라가 5%, 엔비디아가 3% 이상 떨어지면서 1.8% 하락했다.

- 그러나 이번 주 통틀어 S&P 500은 1974년 이래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고의 상승세를 보였다. S&P 500은 1.1%, 다우존스는 0.7%, 나스닥은 1.4% 상승했다.

CNBC 기사

[물류]**WSJ: Help Wanted: U.S. Factories Seek Workers for the Nearshoring Boom****미국의 '니어쇼링' 붐으로 미 제조업 일손 부족**

-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자국 등으로 옮기면서 제조업체들이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 올해 KPMG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반 기업 책임자들의 73%는 지정학적,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의 공급망을 미국으로 더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물류와 창고직 등은 팬데믹 때 노동력 부족한 상황에서 회복되었지만, 제조업의 경우 일손 채우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현재 미 제조업 고용자는 1천3백만 명이다.
- 올해 대부분의 기간 중에 제조업의 취업 공고와 실제 고용 간의 수치는 10만 개의 일자리 차이가 났다. 고용주의 60% 이상은 현재 채용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전국제조업 협회 조사에서 밝혔다.

WSJ 기사

[주택]**Bloomberg: US Mortgage Rates Rise for Second Week to Highest Since July****미 모기지율 2주 연속 상승, 7월 이래 최고치**

- 미 주택 모기지율이 2주 연속 오르면서 주택구매자들의 차용 비용이 지난 7월 이래 가장 크게 올라 부담을 주고 있다.
-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지난주 6.72%에서 6.85%로 상승했다고 Freddie Mac은 발표했다.
- 모기지율은 최근 수 주 동안 거의 7%에 가까운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금융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 계약 건수는 12월 5일까지 4주 동안 작년에 비해 4.1%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Rise; Chinese Economy and Stimulus Set to Be in Focus
유가 상승... 중국 경기 부양책 주목

-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낙관론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가 상승했다.
- 브렌트유는 0.2% 상승한 배럴당 73달러,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3% 상승한 69.81달러를 기록했다.
-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가능성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는 다시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 XS.com의 Samer Hasn은 중국의 경제 회복과 글로벌 원유 수요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Oil Gains in Slow Year-End Trading With Focus on 2025 Risks**유가 상승, 연말 거래는 2025년 리스크에 주목 중**

- 투자자들이 중동을 주목하는 가운데 연말 거래에서 유가가 상승했다. 어제 목요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74달러까지 상승했다.
-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예멘의 발전소, 항구, 수도 공항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수에즈 운하를 막고 있어 유조선들은 아프리카 남부로 우회하고 있다.
-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A/S Global Risk Management의 수석 분석가 Arne Lohman Rasmussen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경우 이란은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OPEC+는 2025년 내내 증산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엔 내년 원유 시장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Trump's Tariff Threats Are Setting Off a Global Supply Chain 'Freakout'**트럼프 관세 위협이 공급망에 두려움을 준다**

- 트럼프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주문을 서두르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 공장들은 구매 업체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물류 비용을 높여 경제 충격이 올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 기업들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문을 서두르고 있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거나 이것이 힘들 경우 기존 공급업체와 재협상을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많은 재고, 비용이 더 드는 신속 배송,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파트너와의 계약 등 비용 증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Bloomberg 기사

WSJ: Japan's Economic Recovery Continues But Progress Tentative, Uneven

일본 경제 회복 중... 모멘텀은 불안정

-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와 소매 판매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등 모멘텀이 고르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 금요일 일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소비자 인플레이는 작년보다 2.4% 상승했다. 11월에는 2.2% 상승했으며, 전문가들은 2.5% 상승을 예측했었다.
- 또한 11월 소매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에 이어, 12월 소매 판매도 2.8% 증가했다.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말 쇼핑과 겨울 의류 및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s Finance, Property Firm Workforces Shrink for First Time

중국 금융 및 부동산 인력 감소

- 최근 몇 년 만에 중국 금융 및 부동산 회사에서 처음으로 인력을 감소했다. 주택 시장 붕괴와 규제 조사로 인한 피해가 반영된 것이다.
- 목요일 발표된 Economic Census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금융 업계 직원 수는 2023년 말 1천2백40만 명으로 5년 전보다 32%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5천1백만 명으로 12% 감소했다.
- 중국 금융 회사들은 정부의 금품 수수 단속 강화, 임금 삭감, 거래 감소로 타격을 입었다. 주택 시장이 붕괴하여 많은 개발업체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내물리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주택부 장관 Ni Hong은 운영이 불가능한 부동산 회사는 파산하거나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Airlines Stocks Beat Market by Most in a Decade as Travel Booms

항공사 주가 10년 만에 최고치, 여행 붐 덕분

- 미국에서 여행 붐이 일고 있다. 미국 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많은 여행 일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분에 항공사 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 S&P Supercomposite Airline Index는 2024년에 60% 상승했다. 2014년 이후 업계 지수로는 최고치다.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한 유나이티드 항공은 올해 주식이 144% 상승했다. S&P500지수에서 4번째로 큰 상승률이다.
- 항공사들의 2025년 전망도 좋아 보인다.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arclays의 분석가는 주가가 아직 싼 편이라고 말했다. Oglenski는 2025년까지 항공사 재정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OpenAI Mulls Plan for a More Conventional For-Profit Business

OpenAI, 영리기업으로 전환 계획

- 비영리단체인 OpenAI가 델라웨어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이 될 계획이다. 독립적인 재무 고문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결정한 주식의 형태로 영리 부문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다.
- 단순한 영리 구조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다. 하지만 OpenAI가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유익한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사명 하에 설립된 것을 생각하면, 기존 원칙을 버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실제로 OpenAI의 공동 설립자이자 초기 투자자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8월 OpenAI가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 OpenAI 이사회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회사의 사명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예상보다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트럼프 '인도계 이민자 기용' 논란에 머스크 "美인재 부족" 옹호"
"AI정책 고문 내정자 "기술직 이민자 영주권 확대" 주장에 논란일자 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도계 이민자인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최근 주요 정책 고문으로 임명한 뒤 보수 진영 일각에서 논란이 일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기술 인재 부족을 지적하며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번 논쟁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촉발됐다.

크리슈난은 인도에서 출생해 인도에서 대학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트위터, 스냅, 야후 등 유수의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총괄 파트너로도 일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